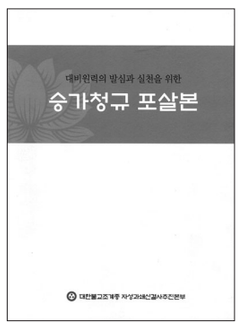
승가청규 보급 '눈앞', 교육·法개정 목소리 높아

결사추진본부 2일 포살본 시연…"자발적 동참 필요" 지적

지난해 9월 승가청규를 발표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보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1월 24일 포살본 5차 개정을 거쳐 12월 2일 중앙승가대서 시연법회를 연 것이다. 이런 승가청규 포살본 보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포살본은 '승가청규 보급' 방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앙승가대 육화당에서 100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청규 포살 시연법회를 봉행했다.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포살본은 예경과 찬탄, 포살의 취지 등 기본적인 포살의식과 함께 수행 · 생명 · 평화 · 나눔 · 문화 등 '5대의 장'과, 의식주 · 소유소비 · 의례의식 · 일상위 · 소임실천 등 '5대 문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5대 문화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특징이다.

의식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을 부리지 않는다' '고급차(茶), 고급

검박한 의식주 생활 강조
"제도 정착 위한 관심 절실"

과일을 삼간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돼 있다.

소비문화에서는 법계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분류했다. 말사주지와 국장의 기본자격인 승랍 10년 이상의 중덕 · 정덕은 소형 1500cc이하를 사용하며, 20년 이상의 대덕 · 혜덕은 중형 2000cc이하를 사용하도록 했다. 25년 이상의 종덕 · 현덕은 대형 3000cc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명의 부동산 소유나 사행성 투기, 신도간 사적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각종 생활에서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경어 사용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다비식 등 의례의식도 검박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승가 교육 필요해"

이번 포살본을 접한 스님들은 환영의 사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사찰 현장의 첨삭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연법회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승단의 기성세대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어렵더라도 긴 시간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젊은 세대들이 성장해 승단의 해이한 부분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사찰 현실에 맞아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첨삭이 가능하도록 청규 제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 동참 위한 교본 보급 필요

이와 함께 대중용 교본도 마련해 전반적인 불자의식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승가청규 포살본에는 대중용 포살본도 약식으로 포함됐지만 출가대중용의 5대 문화와 같이 세세한 사항은 빠졌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불자대중들이 왜 계를 안 지키는 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계율이 우리 생활과 맞지 않아서이며, 둘째는 대중 전반의 계율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우리는 깨달음, 수행을 강조하며 때로는 계율을 극복대상으로도 여긴다. 대중들의 경우 5계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켓북 등으로 지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승가청규 포살본의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조계종 현행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이다. 결계포살법 제6조 5항은 포살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6항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승가청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는 "종단 내 부실장회의에서도 범망경 보살계본 외에 승가청규 포살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의결시 법 개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청와대, '조계종 뒷조사' 의혹 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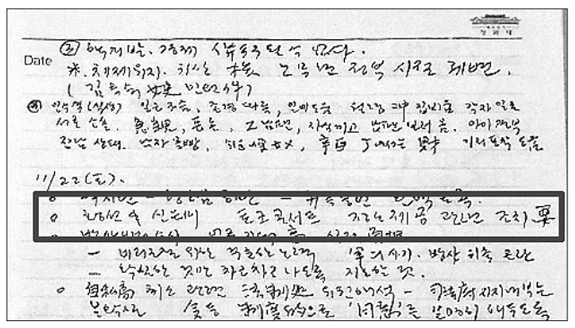
故김영한 비망록에 '자승 스님 조치' 문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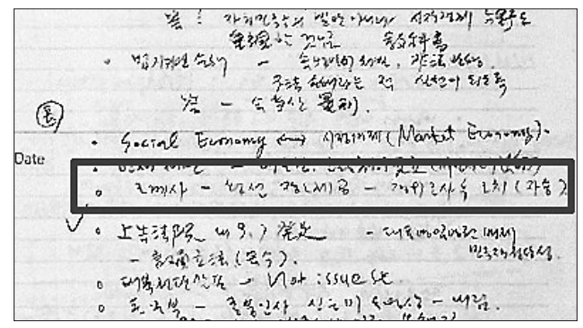
청와대가 조계종 등 불교계에 대한 사찰(査察)과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故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11월 22일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이라는 내용과 3일 뒤인 11월 25일 '장(長)'이라는 표시와 함께 '조계사-황선 장소제공-경위 조사 후 조치(자승)'이라고 쓰여진 내용을 확인했다. '장(長)'은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발단인 '황선&신은미 콘서트'는 2014년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다. 하지만 이들의 콘서트는 종북 논란이 가열되며 장소를 대여한 조계사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집중됐다. 비망록에 기록된 11월 22~25일은 종북 논란이 집중된 시기와 맞닿는다.

비망록에 의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조계종 측은 12월 8일 현재 관련자료 파악 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Date
11/22(토).
○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


Date
○ 조계사 - 황선 장소제공 - 경위조사 후 조치(자승).

비망록 11월 22일(왼쪽 사진) 부분에는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와 11월 25일(오른쪽 사진) 부분에는 '조계사-황선 장소제공-경위조사 후 조치(자승)'이라고 쓰여있다.

신은미 콘서트장 대여 발단
불교계 전반 査察 정황 증거
"1970년대 공안 통치로 퇴행
정교분리 위반, 헌정 유린해"

불교계는 이미 2012년 정부의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 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규탄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불법사찰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주요소임자와 주요 사찰 주지에 대한 계좌추적 등으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교계 승가 및 시민단체들은 모두 공분했다. 현재 구성된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응도 계획 중이다.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청와대 회의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교계를 기망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소장은 "이는 1970년대 공안통치의 모습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한국 사회를 감시 · 통제하려는 가장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불거진 의혹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사찰과 외압은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종교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망록에서 '신부-뒷조사/경찰, 국정원 Team(팀) 구성 → 6급 국장급'이라는 8월 7일자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청와대가 특정시각으로 종교계를 좌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이런 대응 자체가 정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교계도 청와대와의 조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함께 종교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태고종 내년 예산 58억 2040만원 결의

126회 정기회 승인…새 호법원장에 지현 스님 선출

한국불교 태고종 2017년도 예산이 58억 2040만원으로 결의됐으며, 호법원장에 前 경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7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총무원 청사서 재적의원 52명 중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6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 세입 · 세출예산안과 호법부장 선임 등을 안건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번 중앙종회서는 2년에 결친 종단 사태의 단초가 된 신임 호법원장 선거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후보로는 지현, 법진, 혜성 스님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지현 스님이 당선됐다. 신임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태고종이 현재의 내홍을 계속 겪게 된 것은 종단의 기강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호법원이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못한 것이 가장 크다"며 "친분과 문중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종도들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호법원 운영을 통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도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종단의 안정과 종도화합, 그리고 추락한 종단 위상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재정 확보 방안도 꾸준히 논의해 차기 집행부가 원활하게 종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법계에 따른 분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분담금징수법'과 총무원 직제 개편을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또한 총무원 부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안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부산서부 종무원서 추천한 종숙 스님 원로의원 추대는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정 의혹 동국대 교수들 징계위 회부

동국대 이사회서 의결… 11개 안건도 처리

안채란 이사 광고 호소문엔
"이해와 설득으로 대응키로"

제자 성추행, 장학금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 교수들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는 12월 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306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안건 11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성타 · 법산 · 지원 · 세영 · 일관 · 정념 · 승원 스님과 김선근, 김기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 측이 중징계를 요청한 교수는 서울캠퍼스 소속 6명으로, 이들은 제자 성추행 등으로 일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징계위원회는 의결 후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 후임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으며, 9월 임기 만료된 감사 덕문 스님은 재임됐다.

정관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경주부총장 호칭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도 승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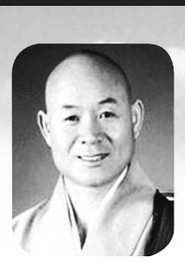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채란 이사가 영석고 내에 자신의 기념관 설립을 요구하며 일간지 광고로 게재한 호소문에 대한 학교 입장과 대응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논의를 통해 안 이사가 광고를 통해 종단과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영석고를 학교에 기부한 뜻을 높이 사 최대한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